나주 황포돛배 '혈세먹는 하마'

매년 개보수비용 등 1억 넘는 손실금 세금으로 보전
위탁운영 업체도 재계약 난색 … 애물단지 전락 우려

나주시가 매년 1억여원의 주민 혈세를 '황포돛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하다.

나주시는 전남도지사의 영산강 뱃길 복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에 황포돛배를 띄워 지역홍보는 물론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전남도로부터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1억원으로 12인이 승선할 수 있는 배(4t급) 2척을 건조하고, 5000만원은 선착장(나주시 공산면 소재)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직접 운영을 시작했으나 인건비를 포함한 기름값 등 뒤따르는 운영비가 생각을 뛰어넘자 같은해 9월부터 황포돛배 운행에 따른 1억 원 이상의 손실금을 매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민간업자인 N관광개발(주)에 영상테마파크와 함께 3년간 위탁을 줬다.

N관광개발 관계자는 "올 8월말까지 3년간의 계약기간이지만 더 맡아서 할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 "요즘 배를 타보려는 방문객 수가 단체손님이 있는 날을 빼고는 하루 평균 50여명에 불과하다"며 재계약에 난색을 표했다.

당시 나주시는 전남도로부터 배만 지원받으면 성공할 줄 여기고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는 막상 운행이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자 뒤늦게 도에 소요경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도로부터 지원명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뾰족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한 '황포돛배'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배 개·보수비용 4000만 원을 포함한 각종보험료 등 배 운영비로 1억60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다.

또 시는 영산강에 띄우기 위해 지난해 5억6000만 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을 들여 100t 규모의 배를 건조해놓고 4대강사업 성공과 맞물려 활성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황포돛배 운영계획을 다시 공고할 계획으로 4대강사업이 완료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광산구 보건소내에 건강증진센터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광주 광산구는 보건소내에 '건강증진 센터'를 설치해 지난주부터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고 있다.

광산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도 '건강증진 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등 3억2000만원을 '건강증진센터'에 투입했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10명도 채용했다.

센터는 광산구 주민 가운데 만 30~64세 남녀의 건강 상태를 측정·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혈액 검사와 체력 측정을 통해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군 ▲위험군 ▲질환군으로 분류해 △복부비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 관리에 관심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주민들이 건강관리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U-헬스 존'(health Zone)을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광산E마트, 첨단 롯데마트, 보건소 민원실 등 3곳에 설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의 입장과 상황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2-960-8789)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강진만 갯벌 노니는 도요새 도요새들이 강진군 신전면 약천 마을앞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도요새는 긴 부리로 갯벌에 있는 게나 조개,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다. 〈강진군 제공〉

강진 농민들 '친환경 농업 길라잡이' 책 펴내

강진 농민들이 친환경 농법 책자를 펴내 화제다.

강진 친환경연구회(대표 문병숙)는 최근 고소득을 위한 114페이지 분량의 '친환경농업 길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연구회가 10여 년 동안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면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차례씩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얻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만든 것으로 ▲벼와 고추 친환경 재배방법 ▲친환경농업 실천사례 ▲천연농약 제조 및 활용법 등이 실려있다. 또 농가에서 최소비용으로 미생물 제조와 천연농약을 만들 수 있는 활용법도 수록돼 있다.

문병숙회장은 "오는 2014년까지 무농약이상 면적을 45%로 확대하는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2차 5개년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 며 "이 책이 지역 친환경 농업인들의 고소득창출에 소중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나주시 청렴공직사회 선언

공무원 1100여명 의식교육·실천 결의대회

나주시는 최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시 산하 공직자 11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초빙된 이상갑 변호사는 '대탐필염'(大貪必廉=큰일을 꿈꾸는 공직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문구를 예로 들면서 "공직자는 청렴과 신중, 부지런함과 친절을 실천하는 것이 청백리가 되는 길"이라며 "공적인 것을 빙자해 사적인 이득을 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이를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시민에 대한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친절해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시민들을 내 가족과 친척으로 생각하면서 친절과 봉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는 민선 5기 들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종 시책 추진에 공직윤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교육 이수후 선도적 실천으로 공직 내 청렴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해 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의식개혁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례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대나무골 담양에 한옥체험관

농촌 관광명소 육성

농촌 체험마을인 담양군 대덕면 무월마을에 한옥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담양군은 지난 19일 무월마을 달빛문화광장에서 최형식 군수와 김동주 전남도의원,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강신겸 교수를 비롯해 무월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무월 한옥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

한옥체험관은 1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68.9㎡(51평) 규모로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나무골' 담양의 특징과 무월마을의 예술적인 감각을 더했다.

한편 대덕 무월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2009), 행복마을(2009), 경관조성 우수마을(2011)로 지정됐으며, 최근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농촌관광명소 육성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대표 농촌체험마을'(Rural-20)에 선정됐다.

무월마을은 한옥과 돌담길을 따라 조성된 마을 산책로와 디딜방아간, 공동 우물샘 등 마을의 전통문화, 전통 토우공방 등과 연계한 풍부한 체험기반이 구축돼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전 북

"LH 경남 일괄이전 원천무효"

전북도, 청와대 농성·법적 대응 등 5대 투쟁 전개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이전에 반발하는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일괄이전 원천무효화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전북도 김완주 지사와 정동영 등 도내 출신 민주당의원, 김호서 도의장, 송하진 전주시장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혁신도시 반납을 비롯한 이른바 '5대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LH 경남 일괄이전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를 거듭 확인하고 전북혁신도시 반납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투쟁 ▲토지기능과 주택기능 분리를 핵심으로 한 LH법 개정 ▲분산배치 관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농성 ▲LH 경남 일괄이전 원천무효를 위한 도민서명 운동 등도 병행키로 했다.

청와대앞 수요 항의농성에는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전주시장, 완주군수, 도내 광역 ·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전원이 참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24일 전주에서 'LH 관련 도민보고대회'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5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키로 했다.

김완주 도시자는 "LH가 빠진 전북혁신도시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여서 반납키로 했으며 언제 어떻게 반납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일괄이전 원천무효와 분산배치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여대 장류체험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생 30여명이 지난 20~21일 순창을 찾아 장류체험을 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뉴스 브리핑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 토지전용 일제 점검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난개발을 막고자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나 산지의 전용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

대상은 200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농지나 산지를 전용한 경제자유구역 내 고군산군도 지역의 277필지, 18만2000㎡이다.

점검 내용은 농지나 산지를 전용 받아 허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지와 허가 조건 외 불법적인 전용 여부, 전용 후 2년 이내 사업계획에 따른 착공여부 등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시, 고용 활성화 참여 중소기업 모집

전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 고용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장년층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체불임금이 없으며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장래가 유망한 제조업 부분 중소기업(종업원수 3인 이상)으로, 전주시 거주 15세~45세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이내(지원기간 7개월이내)의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문의(063-281-2555)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 정보화 마을에 '화상상봉 시스템' 구축

정읍시는 지난 3월 3개 정보화 마을에 '화상상봉 이용 시스템'을 구축, 연중 운영한다.

시스템 설치지역은 ▲내장산마을 ▲옥정호 청정마을 ▲대정유기농 녹색마을 등 정읍지역 3개 정보화마을이다.

이 시설은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화상상봉 서비스는 전화 예약을 한 후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화상상봉 운영 도우미(프로그램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소방서 공덕 동촌마을 화재없는 마을 지정

김제소방서는 지난 18일 공덕면 동촌마을을 '화재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또 이장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했다.

김제소방서는 올해 '화재와의 전쟁' 주요추진 시책 가운데 하나로 '화재없는 마을'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동촌마을 54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나눠주고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주택 안전점검을 비롯해 노후시설 교체,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지방행정연수원 전북 이전 채비

추진단 출범… 7월 착공

지방행정 연수원이 본격적인 전북혁신도시 이전 준비에 나섰다.

지방행정 연수원은 지난 19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전북이전 추진단' 출범행사를 열고 자문위원 위촉 및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전북이전 준비업무를 총괄하는 TF팀인 추진단은 성공적인 이전준비와 전북이전에 대비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김종해 지방행정 연수원장은 "전북혁신도시에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미래형 신교육청사를 건립하는 등 전북이전 준비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행정 연수원은 공사비 924억을 투입해 전북 혁신도시내 부지 18만1794㎡에 시설면적 4만7444㎡(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총 5동(강의동, 생활관 2동, 대강당, 체육시설)을 오는 7월 착공해 2013년 시범운영 및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 '복분자 관광빌리지' 오픈

민관 합작 시설… 복분자주 생산과정 등 체험

고창에 지역특산물인 '복분자'를 테마로 한 민·관 합작 시설이 문을 열었다. 고창군과 선운산복분자주 흥진(대표 장현숙)은 지난 19일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특구에 '산매 복분자 빌리지'(이하 빌리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빌리지는 군비 5억6000만원 등 총 사업비 17억원이 투입됐으며 대지 1400㎡에 복분자주의 생산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홍보관과 미디어실, 복분자 술과 음료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또 휴양시설인 황토 펜션은 50㎡ 규모 6개 동과 100㎡ 규모 1개 동 등 모두 7곳에 달한다. 특히 황토 펜션은 숙박객들이 온돌 찜질을 할 수 있는 미니 찜질방으로 이뤄져 펜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현숙 대표는 "산매 복분자 빌리지는 고창군이 용산리 일대에 추진하는 복분자 클러스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고창 복분자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이리 오너라 Up Go 놀자!'

세계 소리축제 주제 선정

올해 세계소리축제 주제가 '이리 오너라 Up Go 놀자!'로 정해졌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소리축제의 주제는 국악과 판소리로 한판 신나게 놀아보자는 의미를 담아 춘향가의 한 대목을 차용했다"며 "'업고(Up Go)'를 영문으로 표기해 전주소리축제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의 특징은 대중과 소통 강화와 장르간 경계 허물기로 박칼린의 소리뮤지컬 콘서트, 김형석의 THE피아노맨 등 대중음악과 국악의 만남을 위한 장르 파괴 콘서트가 펼쳐진다.

소리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천하명창전은 '2011 新광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연진과 내용이 강화되고, 판소리 5바탕이나 작고명창전, 고음반감상 등도 의미와 흥미를 동시에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 가축분뇨 해양배출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

내년에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전북도의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3045t으로 지난해 1만5623t 보다 81% 감소했다. 이는 전국 배출량 24만4966의 1.2%에 해당된다. 이는 전북도가 그동안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에 대비, 지난 2006년부터 총 7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